DOI: https://doi.org/10.28977/jbtr.2002.2.10.110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인 소요한(蘇堯翰) 장로

소기천*

1. 작은 소망

본 소고는 초기 한국교회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쓰여진 것이다. 본 소고는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싣고자했던 글인데, 마침 공회의 관계자들이 『성경원문연구』지에 싣는다 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소망하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귀한 일이라 여겨진다. 특별히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 권서인[1]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에서, 필자는 본 소고를 집필함으로써 그 직계 후손들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후대에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집안의 신앙적인 내력을 글로 남겨 놓아야 후대에까지 그 귀한 사실이 전해지는 역사 전승의 문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소고는 잊혀진 권서인의 숫자만큼 이와 유사한 글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 누구나 자기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적인 삶을 글로 남겨 놓기 위해서 붓을 드는 일이 일상화되기를 바라면서 필자는 미력이나마 본인의 조부(祖父)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용어 문제

초기 한국교회에서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은 당시 대영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시절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서공회의 직원으로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경(단권 성경과 소위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종의 외판 행상을 벌이면서 성경을 판매한 매서인(賣書人)이다.[2]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급 권서(無給勸書) 혹은 자급 권서(自給勸書)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1900년도 초엽부터 활동을 한 것이 분명

---

* 장신대 교수.

** 이 글은 성서학 관련 논문은 아니지만, 대한성서공회사의 한 페이지를 당사자의 후손이 직접 적은 글로서, 역사 자료로 싣는다. (편집자 주)

1)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 제도에 대해서 필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사, 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특별히 제5부의 "성경반포사업(1882-1945)와 제6부의 "권서 - 성경반포의 주역"은 아주 중요한 사료를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2) 『대한성서공회사』 II가 "권서"라고만 부르는데, "매서인"이라고 부르면서 "권서"라고 부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권서인들은 단순히 성경을 반포한 주역들일뿐만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의 짐을 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복음 전도자들"이요 또한 "권서 전도자들"이었다. 물론 『대한성서공회사』 II, 324쪽에 "매서·권서의 용례"에 대해서 표 19로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어떠한 용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야 했다.

하다.[3] 이들은 단지 서적을 판매하는 것[4]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산간벽촌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인들이었다.

3. 가족상황

소훈식(蘇勳植, 1892년 11월 29일 음력-1958년 2월 28일 양력)[5]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현재의 민속촌 자리, 아직도 선산이 민속촌과 담을 마주한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에서 소봉영(蘇鳳永)씨와 한(韓)씨 사이에서 삼남매의 외아들(삼대독자)로 태어났는데, 누이와 누이 동생 사이에서 귀하게 자랐다. 그러나 그는 7세 때에 모친이 소천한 후, 그의 부친은 삼남매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쇠골에 있는 외가에 맡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장 일을 보았다. 소훈식은 10대에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와서 김양(지금의 용인)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던 오미실 교회에 매일 새벽기도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소요한 장로의 사진 (1892-1958)

그는 18세에 부친마저 소천하자 일찍 조실부모하여 살기 어렵게 된 후에 혼자 떠돌아 다니면서 힘들게 신앙 생활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먼 거리에 떨어진 교회를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봐, 젊은이! 아리실에 천주학쟁이가 있으니 거기 가봐!" 하고 말해 주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용인군 미리내에 이미 천주교 성당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주학쟁이로 통했으니, 소훈식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리실로 들어갔다.[6]

소훈식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아리실로 들어간 이유가 이상과 같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운동은 1909년의 "100만 명 구령운동"의 촉매가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에, "날연보(日捐補)"를 드려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7] 소훈식의 경우에 아리실을 찾아간 것은 우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훈련된 성도로서 전도에 힘쓰기 위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의병대장 최익현

3) 무급 권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1900년, 1903년, 1907년 등 다양한 연도가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성서공회사』 II, 233-236를 참고하라.

4) 당시에 판매된 쪽 복음은 일전 짜리였는데, 이는 결코 싼 값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시 소요한 장로는 권서인을 시작하면서 한달 봉급을 20원을 받았다고 그의 셋째아들인 소동욱은 증언한다. 20원으로 쪽 복음을 다 산다면 200권이니, 당시 쪽 복음의 값이 결코 싼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나의 조부(祖父)가 되는 분인데, 동양적인 관습을 따라 무슨 자(字) 무슨 자(字)로 호칭을 해야 하지만, 본 소고에서는 집안의 다른 분들까지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독자들은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

6) 이러한 내용을 증언한 분은 소요한 장로의 부인인 윤금성 권사의 3남 4녀중 막내 동생인 윤보라이다. 당시 윤보라의 가족은 아리실에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7) 로해리 선교사는 초기 한국교회가 "교회를 처음 조직할 때부터 '시간 연보'를 장려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참고, 로해리의 『조선긔독교회략사』(조선기독교서회, 1933), 53. 이 내용은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회 급성장의 원인 연구,"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정운 명예 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 119에서 재인용.

당시에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은 구한말의 의병대장이었던 최익현(崔益鉉, 18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군 출생)의 후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98년 4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변혁이 있었던 구한말에 친러시아 정책을 쓰던 민비(閔妃)를 일본 자객이 살해하고 한일 의정서(韓日 議政書)를 성립시켰다. 즉 조선의 정치는 일본 제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일제는 고종 황제를 위협하여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한다(광무 8년 8월 22일). 이에 분개한 최익현은 그 협약은 침략의 발판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약을 거부하고 국력을 키우자는 상소를 몇 차례 올렸다. 그는 직접 고종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을 하였다.

> 폐하! 신은 몇일 전에 폐하의 전석(前席)에 나아가서 차자(借字,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와 진달(進達)을 드려 어리석은 대로 충정을 약진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말할 줄을 몰라서 폐하의 심기를 거슬렀은 즉 저의 진의가 옳지 못하면 벌로써 신을 다스릴 것이요 충의(忠義)가 있다면 상을 주실 것이로되 어찌 신의 충정(忠情)을 못들은 척 하시나이까?[8]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통감부에 이등박문이 부임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시켰다. 이에 최익현은 다음과 같이 다시 상소하였다.

> 을사보호조약을 조인한 다섯 대신들[9]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대역 죄인인 만큼 폐하께서 엄히 다스려 목을 베어 이 나라의 백년대계의 모범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오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후세에 어진 임금이라 일컬을 것이며, 신 또한 목숨을 걸고 병졸들과 합심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어 간악한 왜군을 징벌할 것을 맹서하옵고, 백성들의 충성은 만고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 일개 국왕이 외세에 불복하여 침략행위를 부정 거부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고 우방을 만들어 침략의 쐐기를 박는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 부디 이 중요한 시기에 통촉하시어 음흉한 간교에 속지 마시고 다섯 대신들의 목을(파직) 쳐 벌하소서.[10]

그러나 당시에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한 몇몇 고위 대신들은 화를 입게 되었고, 일제는 다음과 같이 소위 한일신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11]을 만들어서 식민지 정책을 펴 나갔다.

이것으로 일제는 완전히 조선의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에 조선의 군대는 해체되었고, 최익현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의병을 모아 왜군을 섬멸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 헌병에게 붙잡히어(1906년 6월 25일) 일본군사령부가 있었던 대마도에 송치되어 3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왜식(倭食)을 거절하며 단식하다가 고종에게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1906년 11월 17일) 그곳에서 순직하였다.

---

8) 이러한 증언은 윤보라의 가문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을 필자가 청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9) 당시에 을사보호조약 조인은 다섯 명의 대신, 즉 외무대신 박재순, 내무대신 이지용, 군무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나중에 총독부감이 되었다), 그리고 농상공대신 권충현 등이다.

10) 이 내용 역시 윤보라의 증언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1)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정부는 시정(施政)을 통감(이등박문)의 지시를 받을 것.
2. 조선의 법령 제정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3. 사법은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4.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이 임명한다.
5. 통감의 추천으로 일본인을 관리로 고빙(雇聘)한다.
6. 통감의 허가 없이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못한다.
7.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을 폐지할 것.

5. 아리실 교회

고종에게 몇 차례 상소를 하였지만 사태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최익현(崔益鉉)은 자신의 외동딸이었던 최기남(崔己男)을 윤영채(尹榮彩)와 혼인시켜 짝만 맺어주고 아리실의 산골마을로 피신시켰다. 이 때부터 아리실은 귀양골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미 그 무렵에 아리실에는 교회가 있었다.[12]

당시에 아리실 지방은 서양 선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도서원 목사, 변조진 목사, 로해리, 위철지 목사 등이 수고를 하였다. 그들은 아리실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였고 무엇인가 기록하여 본국인 미국에 보고를 하였는데, 일본 순사들은 이것을 수상하게 여기고서 그들을 스파이로 점찍어 놓고 항상 뒤 따라 다니면서 감시를 하였다. 아리실 주민들의 눈에 서양 선교사들은 이상하게 보였다. 선교사는 항상 곡상(지금의 요리사)을 대동하고 다녔다. 곡상이 등에 짐을 한 짐 지고서 선교사를 따라 왔는데, 짐을 마당에 내려 놓자마자 우선 구수한 커피부터 끓였다. 동네 주민들은 그 구수한 냄새에 신기한 듯 모여들었고,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었다. 선교사는 2-3일씩 아리실에 머물렀는데, 집안 밖에 있는 변소를 왕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용무를 방안에서 해결하였다.[13]

외동딸 최기남이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아리실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최익현은 외동딸을 그곳에 보낸 것이었다. 이 때에 소훈식도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아리실에 가서 어느 집의 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14]도 깨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를 신실한 청년으로 인정하여 데릴사위로 삼고자 작정하였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며 온전히 성수주일 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일에 예수를 철저히 믿으며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일에 해당하는 품삯을 제하기로 결심하고, 그 주인에게 "내 새경을 빼시오"라고 말하였다. 주일 품삯도 제하면서 피눈물 나는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과 달력이 온데 간 데가 없어져서 그 집 주인에게 물으니, "내가 모두 뒷간에 버렸으니, 너는 딴 생각 말고 짐승처럼 일이나 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날로 그는 그 집을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누이들과 다시 만나서 오미실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15]

어느 가을에 벼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아리실에서 윤영채가 오미실로 찾아와서 "훈식아! 내 딸을 네게 주마! 너 내 딸하고 결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일하다 말고 놀라서 "제가 아리실에서 남의 집에 머슴살던 사람인줄 모르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머슴 살던 사람을 사위 삼는 사람도 있나!"라고 대꾸하였다. 윤영채는 "아, 그런 건실한 사람도 드뭅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이오"라고 주저 없이 대답하였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수소문 끝에 사윗감을 찾아 왔는데, 그가 그냥 돌아갈 까닭이 있었겠는가?[16]

---

12) 처음에 아리실 교회는 감리교단의 교회로 세웠졌는데, 후에 장로교단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해 있다. 교단이 바뀐 이유는 1909년에 체결된 전도구역 분할 협정을 따라서 장로교단 지역 내에 있는 교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관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13) 이상의 내용은 윤보라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재구성을 한 것이다.

14) 소훈식은 부친이 훈장이었기 때문에,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학을 깨치게 되어서 일찍부터 사서삼경을 읽었다.

15) 이상의 내용은 소요한 장로의 슬하에 있는 6형제중의 셋째 아드님인 소동욱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6) 이상의 내용은 소요한 장로의 셋째 며느님인 장예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훈식은 나이 24세 때에 최익현의 외손녀인 방년 17세 처녀 윤금성(尹金姓, 1899년 9월 14일 음력 - 1958년 2월 25일 양력)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6. 장로 장립과 권서인의 소명

결혼한 후에 소훈식은 그의 이름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요한(蘇堯翰)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나무를 심는데 공을 기울인 그가, 이제는 요한이 되어서 복음전도 일념으로 살겠다고 신앙적인 전환을 이루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1918년에 오미실 인근의 김양 교회[17]에서 27세인 약관의 나이에 장로로 장립되었다.[18] 결혼 직후에 부인은 김양에서 냉면 장사를 하였는데, 남편이 장로로 장립된 이후에 곧바로 가게를 처분하였다.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면 가게를 처분한 후에,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중에, 선임 장로이던 유 장로라는 분이 김양 교회의 조사[19]로서 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소 장로를 찾아가서 "대영성서공회의 매서 전도인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천거를 하였다. 당시에 권서인이 되는 조건으로 믿음을 첫째로 꼽았다.[20]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권서인으로서 그 험난한 복음전도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가 복음전도를 위해 쉽게 권서인으로 나서게 된 당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소요한 장로의 권서 활동과 거의 동시대에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선교활동을 보고한 적이 있는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에 의하면,[21] (1) 종교적 공백 상태에서 수 천년 동안 민속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점과 (2)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점과 (3) 한국인들의 복음전도를 위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들 수 있겠다. 세 번째의 이유와 관련하여, 소요한 장로의 경우는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지녔던 구령 소명이 권서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한국교회의 전도열성을 세계 교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1911년에 영문으로 발간된『코리아 미션 필드』란 잡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전도열을 소개하고 있다.

---

17) 김양교회(현재 교회 이름은 용인장로교회이다)는 190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1970년에 용인시 김량 장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500여명이 회집하는 교회이다.

18) 소요한 장로가 남긴 유품 가운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 수정판(조선 예수교 장로회 발행, 1934)을 보면, 당시 장로는 27세에 장립할 수 있었다. 제5장에 치리장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조 쟝로직의 긔원

률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쟝로가 잇슴과 갓치 복음시대에도 목사외에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택립하엿나니, 곳 치리쟝로니라.

2조 쟝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젼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셔는 목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치리하나니라(듸젼 5:17, 롬 12:7, 8).

3조 쟝로의 자격

27세이샹 남자즁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샹당한 식견과 통솔의 긔능이 잇스며 듸젼 3:1-7에 해당한 자로 할 것이니라.

19) 지금의 전도사이다. 당시에 유 조사는 월 20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20) 이상의 내용은 윤보라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재구성을 한 것이다.

21) Arthur J. Brown, *One Hundred Year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6), pp. 42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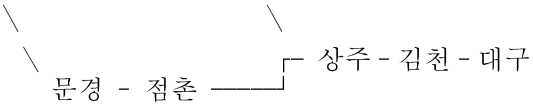
>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급 10만 날을 이 사업[22]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에 개인 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가호호를 심방하는 활동과, 대집회에 출석한 구도인(求道人)들과의 개인적 접촉을 위하여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 매의 전도지와 한인 성도들이 대금을 내고서 믿지 아니하는 동포들에게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심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23]

당시의 이러한 전도열이 소요한 장로로 하여금 권서인으로 소명을 갖게 하였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7. 사역 경로

소요한 장로의 권서 사역은 1918년부터 1938년 은퇴하기까지 만으로 20년[24]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권서인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해인 1918년에 권서인 총수는 144명(혹은 148명)이었고, 권서 직에서 은퇴하던 해인 1938년에 권서인 총수는 65명(혹은 78명)이었다.[25] 그가 맡은 전도 구역은 경기도 남쪽 지역이었다. 1909년에 체결된 선교분할 정책은 다음의 3개의 경로[26]로 나누어서 복음 전도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1 경로:
서울 - 시흥 - 수원 - 성환 - 천안 - 충주 - 상례 - 전주 - 남원
제2 경로:
서울 - 판교 - 용인 - 죽산 - 진천 - 증평 - 청주 - 보은 - 영동
제3 경로:
서울 - 광주 - 이천 - 을죽 - 연풍 - 제천 - 영춘 - 영주



소요한 장로의 전도 구역은 제2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걸어서 다닌 전도사역은 문자 그

---

22)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업은 당시 한국교회가 힘썼던 '날 연보' 전도사업을 가리킨다.

23) "The Million Movement and Its Results," *The Korea Mission Feild* (January, 1911), 5.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회 급성장의 원인연구,"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9-120에서 재인용.

24) 권서인을 만 20년 이상 봉직한 사람은 소요한 장로 이외에도 강원 지역의 이선용, 강원 황해 지역의 이태관, 서울 지역의 이성실, 경기 지역의 송순명, 경성부의 신영희, 무지역의 양익환, 안성 지역의 이성근, 경기 지역의 이용석, 경기 지역의 장윤교, 양산군의 김기화, 고성군의 김태호, 경남 지역의 이봉은, 초산군 자성군의 김인도, 함흥 지역의 김정현, 함남 지역의 남충만, 함남 지역의 장호근, 무산군의 한응구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안성 지역의 이성근은 소요한 장로와 함께 똑 같은 해에 권서를 시작하여 똑 같은 해에 권서를 마친 동료이다.

25) 권서인의 숫자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례보고서와 집계의 오차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38년도의 경우만을 언급한다면, 당시의 연례보고서에 의해 집계된 총 판포량 가운데 권서인에 의한 반포량이 779,478권이고 권서인 1인당 반포량이 11,990으로 계산이 되므로 위의 65명의 수치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

26) 안재명, 『충청북도에 복음이 들어 온 이야기, 장로회 초기선교사들과 초기교회를 중심으로』 (청주: 주성사진문화인쇄, 1999), 23.

대로 배고픔을 참고 다녀야 하는 길이었다. 시장한 것을 견디다 못해서 남의 콩 밭에 들어가서 한 움큼 손에 쥐고는 그 집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날 콩으로 주린 배를 달랬다. 어떨 때는 날 옥수수를 한 자루 들고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모두들 어렵게 살고 잇는 마당에 쪽 복음과 성경책을 사려는 사람을 거의 없었다. 소 장로는 거의 나눠주다시피 쪽 복음과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였고,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우면서 침술과 한약제를 짓는 훈련을 받았는데, 권서 사역을 가는 곳마다 아픈 병자를 치료하면서, 때때로 후한 대접도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였다. 고무신을 아끼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다가 전도하려는 동네 어귀에 당도하면 그 때에야 신발을 신었다. 얼마나 걸어 다녔던지, 가을에 밤송이를 깔 때 맨발로 밤 가시를 밟고 발뒤꿈치로 깔 정도였다.[27] 집을 떠나서 한 번 전도를 나가면 일 주일은 보통이고, 이 주일이나 삼 주일도 걸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씩도 나가 있었다. 집을 떠나 있다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 올 때, 소요한 장로는 항상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크게 불렀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호롱불을 밝히고 다같이 달려 나아가 기쁨으로 동네 어귀에서 상봉하였다. 소요한 장로는 귀가하여 한두 주일 정도를 집에 머물다가, 다시 전도여행에 나섰는데 일년에 대략 40주간 정도를 전도사역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성경전서와 쪽 복음을 담은 궤짝을 그대로 등에 지고 20년을 도보로 다닌 고된 일로 인해서 소요한 장로의 등에는 'ㄱ'자 모양의 굳은살이 박혔고, 어깨에는 궤짝을 지기 위해 잡아맨 새끼줄로 인해서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흉터가 잡혔다고 한다. 노래(老來)에 소요한 장로는 후유증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허약한 체질로 인해 몸이 아프고 냉해질 때마다 값싼 독부자탕[28]을 다려 먹었다고 한다. 좀 약을 과하게 들었을 때 그의 수족이 뒤로 넘어가서 식구들이 달라붙어 손발을 주물렀고, 아내인 윤금성 권사는 녹두를 씹어서 그 즙을 짜서 입에 넣어 위기를 넘기곤 하였다고 한다.

소요한 장로가 환갑을 맞이하여 부인과 찍은 사진을 보면 그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더 들어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고된 복음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에 온갖 질병을 다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록 가는 곳마다 한약재를 다려주고 침술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도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요한 장로의 전도사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벽촌 마을에 가서 성경책을 내 놓으면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이는 "책 값이 얼마죠?" 라고 스스로 물으면 "아-, 주시면 받지요!"라고 하면서 쌀 됫박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그냥 나누어 주었다. 결국 그 값은 권서인 스스로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대영성서공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므로, 공식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였다. 어느 동네에 점잖은 노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세상의 잡신을 섬기지 말고 참신을 섬기라"고 말하자, 그 노인은 "아, 미투리는 아니고, 참신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문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서민들은 주로 짚신을 신고 다녔는데, 모처럼 나들이를 할 때 미투리를 신고 나갔다. 시집 간 딸이 친청집을 찾아갈 때 미투리를 신고 가기도 하였다. 소요한 장로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골 영감

27) 소요한 장로의 셋째 며느리인 장예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도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같은 사실에 관하여 눈시울을 적시면서 증언한다.

28) 옛날에 부자는 녹용과 인삼을 넣은 한약을 먹고 몸을 덮혔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만을 끓여서 먹었다.

소요한 장로 부부의 환갑 사진

은 농으로 받아 넘겼다는 뜻이다.

9. 공식 기록

소요한 장로는 한 달에 20-30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고, 20년 봉직하고 은퇴하던 달에 40원을 받았다. 그는 미국북장로교(NP) 소속으로 공식적으로는 용인군 원산면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고, 그를 감독한 선교사는 탐스(J. U. S. Toms), 코엔(R. C. Coen), 윈(G. Winn) 목사였다.

민휴선생실기(閔休先生實記)[29]를 근거로 기록된 『대한성서공회사』II에는 소요한 장로의 20년 권서 사역 중에서 단 8년 동안의 업적보고만이 정리되어 있는데, 1918년부터 1920년까지, 1922년부터 1923년까지, 그리고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성경전서 41권, 신약전서 혹은 구약전서 505권, 단권 쪽 복음 104,830권을 반포하였는데, 8년 동안의 기록상으로 볼 때 총 105,376권을 반포하였다.[30]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12년을 합산하면 서너 배에 이르는 분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권서인으로서 소요한 장로의 활동은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요한 장로가 권서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해인 1918년에 함경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영(L. L. Young) 목사는 권서인이 하룻밤 묵을 집도 없이 노숙까지 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 나는 조선 권서인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일은 어렵지만 그들은 즐겁게 수행해 내며 거의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선교지역에 사용되는 모든 외국 돈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권서 사역에 쓰여진 돈이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의견이다.[31]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의 권서 사역은 수지타산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손실이었음이 선교사들 사이에 감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장 값어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 것은 권서 사역이 전도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소요한 장로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단지 성경책을 파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는 선교사들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였고, 세례 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후에 그들을 선교사에게 연결하여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다. 당시에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낯선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권서인들은 무척 요긴한 선교 동역자요 선교의 첨병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요한 장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0. 사역의 특징

---

29) 양주삼 정태응 편찬,『민휴선생실기』대영성서공회, 1937.

30) 『대한성서공회사』II, 411, 433.

31) 참고, *The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for 1918*, 133. 『대한성서공회사』II, 365에서 재인용.

소요한 장로는 권서직에 재임하는 동안에 전도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인도와 사경회도 인도하였다. 그가 전도여행 중에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해 주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침을 놔주고 한약제를 지어주었는데, 환자들은 그의 정성과 수고에 감동하여 예수를 잘 믿었다. 그는 자신이 정성을 쏟으며 힘껏 봐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갔다. 그 후에 그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그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해마다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의 조사와 협력하여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소요한 장로가 쓰던 신약전서

소요한 장로가 남긴 유품으로 그의 권서 활동 초기와 거의 일치하는 1923년에 대영성서공회에서 국한문으로 발간된 신약전서를 보면, 그는 각 장의 여백을 촘촘한 글씨로 가득 메웠는데, 그 모든 내용이 설교를 위해 인용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그때 그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성경의 앞 뒤 서너 장의 여백을 가득 채운 성경 연구 자료(예를 들면, 예수의 비유 45개,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심, 12사사의 명단, 유교의 내세관, 각 국의 이상한 것, 출애굽기 개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언,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한 내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말씀 10개, 7시대 구분 등)가 모두 성경 구절과 더불어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사경회를 위한 깊이 있고 면밀한 준비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

유족들은 한결같이 “아버님은 설교를 항상 재미있게 하셨어요!”라고 증언하는데, 이러한 증언은 그가 남긴 이야기책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의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한 권으로 책을 묶어 놓아 후손들에게 유품으로 남겨 놓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1. 20년 은퇴 후에

권서직에서 은퇴한 후에, 소요한 장로는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문시랑(지금의 문촌리)에 거주하였고,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살 수 없게 되자 문시랑 교회의 사택에서 거주하던 중 1940년 3월 13일에 서울 영등포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는 서울에서 영등포 교회를 출석하며 봉사하던 중 1943년에 다시 그곳에서 시무장로로 취임을 하였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해 추운 겨울이었던 12월 30일에 처가가 있던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아리실로 피난을 가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아리실에서 몇 달 거주하면서 쌀 네 가마를 모으게 되었는데, 1951년 이른 봄에 그것을 가지고 처가 동네를 떠나서 인근 마을인 이동면 어비리 수역이라는 마을에 있는 흉가를 사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는 수역에 이사한 지 8개월 정도 경과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 전도를 한 소요한 장로는 1952년 1월 3일에 동네 주민 40여명을 모아서 자신의 사랑방에서 수역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전쟁 중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지만, 막 결혼하여 새 식구로 들어온 셋째 며느리[32]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주 닭 한 마리를 잡아 드리면서 힘을 북돋았다고 한다.

수역교회는 소요한 장로의 사후(死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민병억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시무(1960년 3월부터 1962년 11월까지)한 교회이기도 하다.

현재 수역교회는 세 차례에 걸친 교회 건축 끝에 아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교회인지라 언제나 어려움이 많아서 교역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2002년 2월 현재(이명환 목사 시무) 세례교인의 수는 29명이며,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인들의 수는 30여명이며, 주일학교 아이들은 15명이다. 참고로 교회 주소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어비3리 수역동 1301-3이며, 전화는 031-332-6992이다.

32) 장예(張禮)는 1951년 10월 15일 (음력으로 9월 15일)에 소동욱(蘇東煜, 현재서울 영락교회 은퇴집사이다)과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7남매를 두고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기천(基天)은 목사와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기호(基昊)는 일본인 선교사와 다까하다 교회 담임목사로, 미국 유학 중인 기범(基範)은 전도사로, 기은(基恩)은 장로와 찬양대 지휘자로, 자부 중에 정민임(丁敏任)과 최희안(崔喜安)은 목사로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사역중이다. 현재 장예는 서울 영락교회의 은퇴권사로서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고 있다.